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

9/29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엘 5: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엘 1:5, 9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일 3: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일 4: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요일 5:1, 4, 18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4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18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므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 장 1 절에서 바울의 말은 명령형으로서 일종의 명령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할 수 있다(마 5:48).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 장 13 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더욱이 베드로후서 1 장 4 절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원송이를 훈련시켜서 사람 흉내를 내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원송이에게는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본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35-2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요한일서 3 장 1 절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2 장 29 절의 ‘그분에게서 났다’와 상응한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 신성한 출생을 통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얻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권위이다 (요 1:12-13). 그 영은 한때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롬 8:16). 우리는 때로 약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 장 12 절과 13 절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혈통’이란 육체의 생명을 나타내고, 육체의 뜻은 사람이 육체가 된 후의 타락한 사람의 뜻을 가리키며, 사람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의 뜻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나 타락한 생명이나 창조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곧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태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단언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분은 우리의 양아버지나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분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요 1:12).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는 우리의 생명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00, 24-2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4*

9/3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4:8, 16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 5:14, 48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마 19:17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판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롬 5:17-18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 장 1 절부터 21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실지적이고 섬세한 방면을 제시한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행함을 위한 빛과 사랑이다. 신약에서 빛과 사랑은 실재(진리)와 은혜처럼 한 쌍이다. 빛은 실재의 근원이고,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따라서 빛과 사랑은 실재와 은혜의 근원으로서 한 쌍을 이룬다. 실재와 은혜는 빛과 사랑의 결과로서 한 쌍을 이룬다. 빛이 비칠 때 실재가 되고, 사랑이 표현될 때 은혜가 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은혜와 실재가 그분과 함께 온 것을 계시한다(1:17). 은혜는 신성한 사랑에서 왔고, 실재는 신성한 빛에서 왔다. 요한일서는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통하고 은혜와 실재에 의해 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와의 교통 안으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근원인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근원인 그분의 빛을 접촉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2, 2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랑과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의 본질이다(요일 4:8, 1:5). 은혜와 실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사랑과 빛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런 후 은혜와 진리를 누림으로써 은혜와 진리의 근원, 즉 사랑과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된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어야 한다. 사랑과 빛이 둘 다 하나님이므로,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17 절부터 32 절까지에서 우리는 새사람의 생활을 위한 실재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만, 5 장 1 절부터 21 절까지에서는 믿는 이들의 행함을 위한 빛과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본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비추시고, 이러한 비춤의 결과는 진리 혹은 실재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빛 비춤이 없기 때문이지만(엡 4:17-18),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비추고 심지어 그들을 빛으로 만드신(5:8)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있다.

에베소서 5 장 13 절과 14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비추는 빛이심을 본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 13 절에서 ‘책망을 받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드러난’, ‘폭로된’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우리가 폭로되거나 책망을 받는다면, 단순히 그 폭로와 책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모든 책망은 그리스도의 비추심이다.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마다 “주님, 당신의 비추심으로 인해 당신께 경배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당신의 비추심이며,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참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어떤 책망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비추시고 밝혀 주신다. 에베소서 5 장 14 절에 따르면, 13 절에 언급된 드러냄이 필요한 잠자는 이는 또한 죽은 이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빛으로 만드시어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게 하는 빛이시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2, 254-2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2

10/01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5:2, 8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엡 4:17-24 (17, 20-24)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 장 2 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 이 절에서 그는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은혜와 실재(진리)가 에베소서 4 장 17 절부터 32 절까지의 기본

요소인 것처럼, 사랑(5:2, 25)과 빛(8-9, 13 절)은 5 장 1 절부터 33 절까지에서 사도가 한 권유의 기본 요소이다.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며,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진리는 빛이 계시된 것이며, 빛은 진리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다(요일 4:8, 1:5).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시고 계시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빛은 진리가 된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리로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사랑과 빛을 누린다. 사랑과 빛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권유할 때, 먼저 은혜와 진리를 기본 요소로 삼고, 그 다음에 사랑과 빛을 기본 요소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행함에서 더 깊어지고 또 외적인 요소에서 내적인 요소로 더 전진하는 것을 사도가 원했음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36-2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된 요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적인 것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빛은 외적인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는 실질과 빛나게 하는 요소 둘 다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함의 내적인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엡 5:2),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에베소서 4 장 32 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행함의 본으로 제시했다. 5 장 2 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본으로

보여 준다. 4 장 32 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와 실재(진리)가 기본 요소이므로,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4 장 32 절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의 본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5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2, 25 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 빛(14 절)이 기본 요소이므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본이시다. 여기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의 본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 5:2)고 말한다. 성경에서 예물과 희생 제물은 다르다.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지만, 희생 제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예물로 드리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었다. 그분께서 세우신 본을 따르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달콤한 향기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 장 8 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전에 우리는 어두웠을 뿐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마 5:14). 빛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둠은 사탄이다. 우리는 사탄과 하나였기 때문에 어둠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들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한다(엡 5:8).

에베소서 5 장 10 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절은 8 절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방식이나 눈먼 방식이나 무지한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37-238, 240-241, 2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10/02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일 4: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엡 4:25-32 (25-27, 30-32)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26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31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 장 2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8 절에서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말한다. ...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러움에서 지킬 것이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모녀간의 친밀한 관계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 주는 예이다. ... 어머니와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딸들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한다.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느낌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를 향한 친밀한 사랑 안에서 행한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은혜를 받은 이들로써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접촉하려 올 수 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인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를 누린다. 우리는 매우 친밀한 방식으로 이 사랑을 체험한다.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언짢으시게 하는 그 어떤 것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을 미워하신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떠날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한 행함인가! 이것은 단순히 은혜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그분으로 적셔진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매일의 행함에서 항상 아버지의 느낌을 주의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41-2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랑과 은혜의 차이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때로는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 어린 포용을 누리기를 원할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어린 품 안에서 쉬는 것은 사랑을 설명해 주는 예이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 안에서 아버지께 갈 때 우리는 은혜의 근원인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42-243 쪽)

신성한 사랑은 ...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 요한일서 4 장 9 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1 장 15 절에서처럼 요한일서 4 장 9 절에서 ‘세상’은 타락한 인류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시므로써 그들을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일서 4 장 10 절에서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을 가리킨다. 이 사실 안에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신성한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에서 주로 표현된다.

에베소서 2 장 4 절은 “금훔이 풍성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한다.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훔의 대상은 항상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금훔은 사랑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고, 심지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금훔이 필요하다.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금훔이 풍성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보다 고귀한 그분의 사랑이 타락한 삶의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그분의 속성이 필요하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8, 108-1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8

10/03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1: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엡 1: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5: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고전 12: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요 14: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교회생활은 사랑과 빛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요소들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빛을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부인 교회로서 최고의 교회생활을 갖는다. 에베소서 1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으로 이끌어 그분을 사랑과 빛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치는 빛과 달콤한 사랑을 누리면서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살아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1, 355-3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 장 4 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선택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상호적인 사랑인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안에서 변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안에서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고 말한다(엡 3:17).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딤후 1:14).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사랑으로 그분을 누린다. 믿음과 사랑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고 터를 잡게 한 사랑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 신성한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그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생명 안에서 건축된다. 여기에 있는 바울의 사상, 즉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생명과 건축의 문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사상은 확실히 깊고 심오하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3, 61-62 쪽; 2 권, 메시지 33, 69 쪽)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사용된다(1:4, 3:17, 4:2, 15-16, 5:2).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생명의 성장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가 고봉의 진리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까 봐 염려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진 것이고 건축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고전 9:22)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약하지만 자신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8 장, 165-166, 170 쪽)

바울은 에베소서의 끝에서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하여 한마디를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엡 6:24) 디모데전서 1 장 17 절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1 장 10 절은 주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 장은 부활의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50-53 절).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 창조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은 썩어 간다. 이것은 로마서 8 장으로 입증되는데, 그 장에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썩음의 노예 상태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본다(21-22 절).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은 썩어 가고 있다. 새 창조물만이 썩지 않고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4 권, 교회, 메시지 235, 191-1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16, 35

10/04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2:28-29

28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9 여러분이 만일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의를 실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요일 3:11, 14, 16-18, 23-24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16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17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아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18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23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엡 5:9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진리와 빛의 차이를 지적해 내기는 다소 어렵다. 때로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실재이신 것을 깨닫지만, 종종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실재를 체험할 뿐 아니라 빛 자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빛을 체험하는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우리는 실재에 따라 은혜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빛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실재에 따라 은혜에 의해 사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섬세한 것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명령한 후에, 바울은 ... 에베소서 5 장 9 절에서 빛의 열매에 관한 부분을 삽입한다. ...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다. 의는 빛의 열매가 산출되는 길 또는 절차이다. 참된 것은 빛의 열매의 실재 곧 참된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 되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42-24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의 열매를 말할 때 바울이 단지 세 가지, 즉 선과 의와 참된 것만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 그 이유는 ...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는 빛의 열매가 삼일 하나님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을 가리킨다. 주님은 언젠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뿐이시라는 것을 지적하셨다(마 19:17). 따라서 여기에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

여기에서 바울이 빛의 일이나 빛의 행위를 말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말한 것에 주의하라. 열매는 본성을 지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빛의 열매의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의는 빛의 열매가 산출되는 절차이다. 신격의 방면에서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어떤 것들을 산출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절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의 두 번째 방면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킨다.

참된 것은 빛의 열매의 표현이다. 이 열매는 분명 참되다. 즉 하나님의 표현이며, 감추어진 빛의 비춤이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참된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째이신 실재의 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선이신 아버지, 의이신 아들, 참된 것 곧 실재이신 그 영 모두가 빛의 열매와 관련되신다.

에베소서 5 장 9 절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8 절)에 대한 정의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한다면, 9 절에서 묘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함으로 맺는 열매는 반드시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 나타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0, 243-244 쪽)

신성한 빛은 ...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과 관련된 속성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23 절은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천년왕국에서 해와 달의 빛은 강화될 것이다(사 30:26).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와 달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밝게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8, 1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9

10/05 주일

아침의 누림

요이 1:1-6

- 1 장로인 나는 선택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 2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 4 나는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5 부인, 이제 나는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써 보내면서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 6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